



한글서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동’

도, 올해 국가무형유산 공식 지정 따라 2030년 등재 목표로 본격 절차 착수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한글서에 교육 확대 등 세계화 위한 사업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한글서에 유네스코 등재에 시동을 건다.

이와 함께,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 △제15회 202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한글서예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22년부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5년 1월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글서예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월 ‘한글서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전문가 자문과 행정적 뒷받침을 병행 중이며, 5월부터 12월까지의 역사·전통 고증, 발전 방향 연구, 시정각 자료 제작 등을 통해 등재기준 충족을 위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은 2019년 서예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제정된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되어, 2021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4일 착공이 진행되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조감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부터 2024년까지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14일 착공식을 통해 서예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내 부지에 총사업비 328억원, 부지면적 1만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연친화적인 배치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삼아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뿐 아니라 전통미의 현대적 해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각 층별로는 △1층에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 △2층에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이 마련돼 전시·교육·창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31일

간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특히 한자서에 중심에서 벗어나 한글서예를 중심에 두고, 청년 작가 지원 전시, 디지털 융합서예 전시 등 현대 서예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이 마련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 1억원을 활용해, 국내 청년작가 20명이 참여하는 ‘청년시대소리 - 정음(正音)’ 전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연계해 열린다.

끝으로, 도내 10개 시군의 14개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서예 교육’을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7명의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학생서예공모전’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작품을 공모하며, 수상작은 비엔날레 기간 중 전시된다.

이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서예문화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국제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의 결을 굳건히 지켜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선생님 결 굳건히 지켜드릴 터”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 통해 감사 인사
“오늘의 전북교육, 온전히 선생님 덕분… 내일도 주역”

“선생님 결을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3일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을 통해 “학생들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고,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결같이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 주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원은 흔들리고, 선생님의 마음도 서서히 지쳐간다

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일, 교원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 교육청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선생님이 학생의 결을 지켜주듯 교육청도 선생님의 결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초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의 전북교육은 온전히 선생님 덕분이며, 내일의 전북교육도 선생님이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어민 생존권 보장”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결정에 대해 관리수위 -1.5m 제한이 달린 불안전한 조치라며 상시 해수유통 전환과 어민 생존권 보장, 수변도시 안전성 재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결정에 대해 관리수위 -1.5m 제한이 달린 불안전한 조치라며 상시 해수유통 전환과 어민 생존권 보장, 수변도시 안전성 재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전북소방, 노후 청사 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섰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98억원을 투입해 도내 노후 청사 17개소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사업이다.

대상 청사는 사용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곳 중 노후도, 협소도, 출동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으며, 단계적으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3년 차로, 총 105억8,000만원을 투입해 10개소의 청사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산 금동119안전센터, 서수·회현119지역대, 익산 황등119지역대, 임실 오수119지역대 등 5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 사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익산 금마119안전센터, 여산·금구·동향·북흥119지역대 등 5개소는 올해 중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주민소통분야 ‘최고 등급’

전북자치도, 민선8기 시도지사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서
공약 추진과정서 소통 강화·사업 점검 결과 공개 등 주요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2025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주민소통분야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이행안료분야,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또한, 도민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

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고,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약이행 도민평가단’과 ‘차문평가단’을 운영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절내장산 그린폰도

2025년 6월 1일 [일] 내장산 워터파크

주최·주관 정읍시체육회 JEONGUP SI-SPORTS COUNCIL 정읍시자전거연맹 Jeongup Cycling Federation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